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빛이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내쫓음과
동시에 죽음, 저주의 세력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전달될 때 나의 질병, 절망,
좌절, 상처, 죄악 등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에 대해 점점 더
희망을 잃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 지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2천년 전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예수님께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많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다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의 가정에 빛이다.
너희들의 내면 세계의 빛이다."

- 하용조